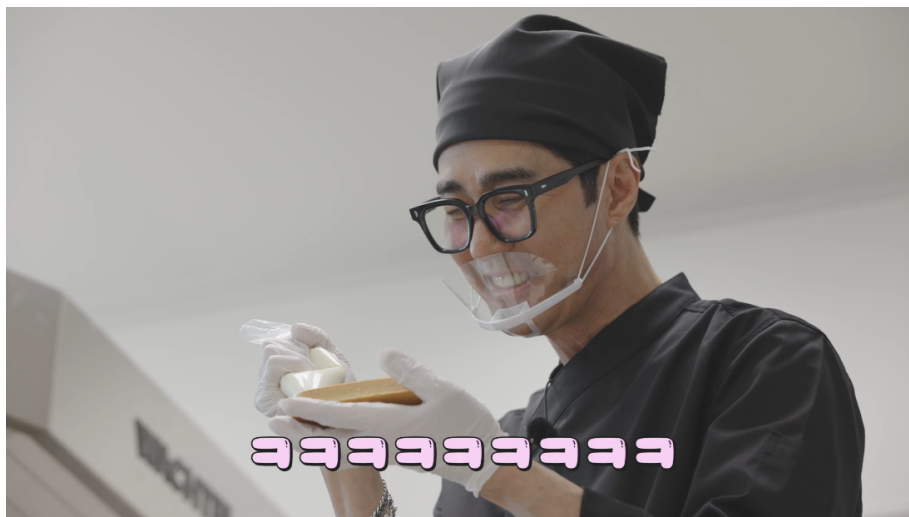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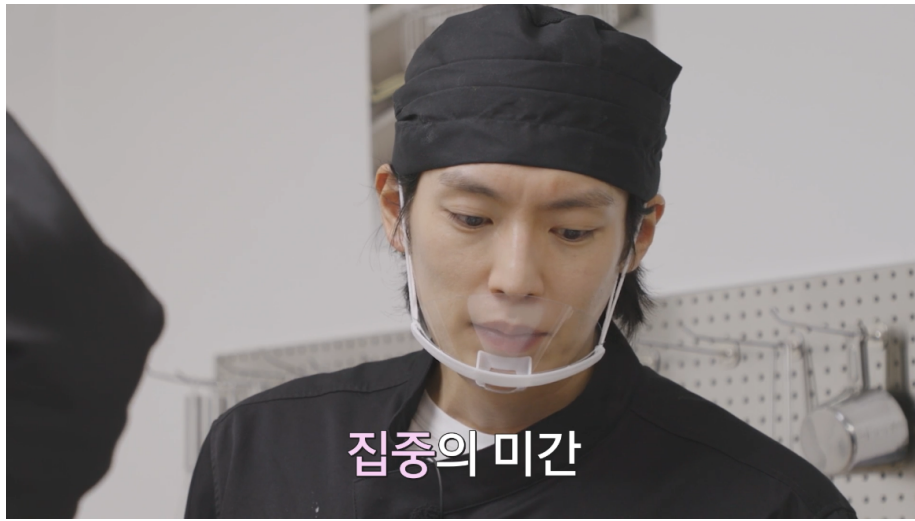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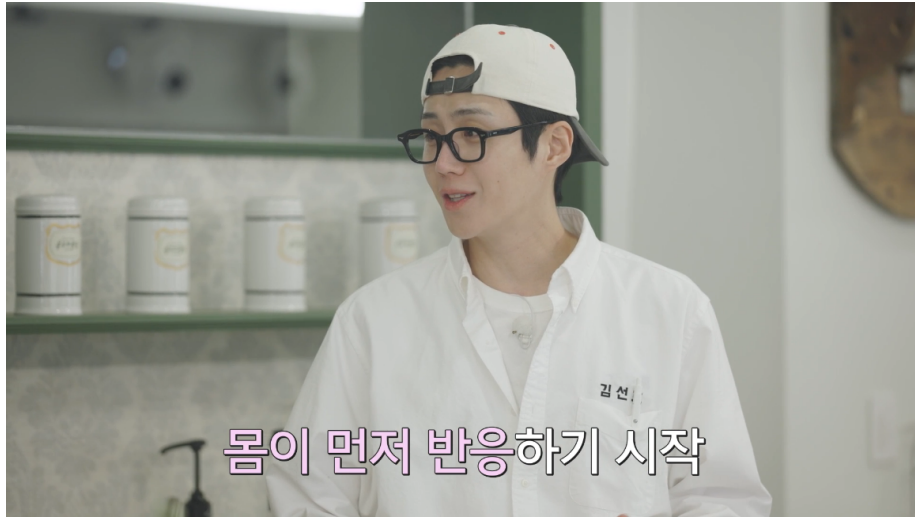


[보도자료] 쿠팡플레이 예능 '봉주르빵집', 차승원의 야심작 '동백 타르트' 개시! 고창의 '홍반장' 김선호의 배달 서비스까지, 진심 통했다!

2026. 6. 1.

쿠팡플레이 예능 <봉주르빵집>, 차승원의 야심작 '동백 타르트' 개시! 고창의 '홍반장' 김선호의 배달 서비스까지, 진심 통했다!







<봉주르빵집>은 조용한 시골 마을에 문을 연 국내 최초 '시니어 디저트 카페'를 배경으로 인생의 맛을 아는 어르신들과 행복의 맛을 아는 빵집 식구들이 달콤한 위로와 온기를 나누는 힐링 베이킹 예능.

지난 29일(금) 공개된 4화에서는 마을의 어엿한 '사랑방'으로 자리 잡아가는 <봉주르빵집>의 풍경이 유쾌하고도 몽클하게 그려졌다. 처음에는 낯선 프랑스 디저트 카페를 어색해하던 어르신들이 어느덧 자연스럽게 빵집 문을 열고 들어와 재방문을 약속하고 돌아서는 모습은 깊은 인상을 남겼다.

이러한 만석 대란의 중심에는 날이 갈수록 업그레이드되는 빵집 식구들의 진심 어린 서비스가 있었다. 사장님 김희애는 친정어머니를 떠올리며 어르신들의 말벗이 되어주는 따뜻한 환대로 훈훈함을 자아냈다. '김반장' 김선호는 약속을 잊지 않고 다시 찾아와준 할아버지 손님을 위해 직접 집 앞까지 구움과자를 배달하는 특급 서비스를 선보이며 감동의 크기를 더했다.

주방팀의 장인 정신과 성장 스토리도 빛을 발했다. 차승원은 자신의 야심작이자 최고난도 메뉴인 '봉주르 동백 타르트' 작업에 모든 혼을 갈아 넣었다. 동백꽃을 형상화한 화려한 비주얼과 섬세한 디테일에 손님들의 감탄이 쏟아지자, 직접 반응을 확인하기 위해 홀까지 뛰쳐나오는 '차셰프'의 모습에서 진심과 애정이 고스란히 느껴졌다. 이기택 역시 차승원의 매서운 손길 곁에서 묵묵히 기술을 전수받으며 점차 든든한 보조 셰프로 성장해가는 모습으로 흐뭇함을 안겼다.







아휴 내 덕분도 있어



손자 할머니
29세와 29년생의
MZ 샷

빵집 식구들의 케미와 결속력도 한층 끈끈해졌다. 무사히 영업을 마친 뒤 삼겹살 회식으로 결속력을 다지는가 하면, 홀 듀오 김희애와 김선호는 시장에서 호떡과 찹쌀도넛을 정겹게 나눠 먹으며 유쾌한 장보기 시간을 가졌다. 점점 가족처럼 스며드는 이들의 자연스러운 분위기는 앞으로의 이야기에 대한 기대감을 한껏 높였다.

무엇보다 디저트 한 조각을 사이에 두고 피어난 어르신 손님들의 다채로운 인생사는 보는 이들의 마음을 풍성하게 물들였다. 서로에게 디저트를 사주려는 다정한 모녀부터 첫 입을 아내에게 양보하는 백발의 사랑꾼 할아버지, 29세 손자와 29년생 할머니의 세대 초월 빵집 나들이까지 빵집을 가득 채운 온기는 시청자들의 마음까지 완벽하게 저격했다.

<봉주르빵집>은 무료한 하루 속 잠시 웃고 이야기 나눌 수 있는 ‘마을의 쉼터’로 자리잡아가고 있다. 혼자 빵집을 찾은 어르신이 “촌에서 장사가 되냐”고 걱정하면서도 “사람들이 많이 찾아와 재미있고 좋다”고 웃어 보이는 장면은 이 공간이 어느새 마을 사람들의 일상 속 작은 활력이 되었음을 보여주며 감동을 안겼다.

따뜻한 온기로 전 세대의 취향을 저격하고 있는 힐링 예능 <봉주르빵집>은 매주 금요일 오후 4시 오직 쿠팡플레이에서 만날 수 있다. 쿠팡 와우회원은 물론 일반회원 누구나 무료로 시청할 수 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